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6
----------	-----

2019. 2. 2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 안건명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II . 심사경과

의안 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상정일자)	심사결과
436	2019.2.1	2019.2.7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2.28)	원안동의

III . 제안설명의 요지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1. 제안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나.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진 방향

- 산업, 우시장, 문화(독산 3락) 등 지역자산 기반의 신경제·문화중심지 조

성을 목표로 도심제조업 등 지역산업 육성과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산업재생), 우시장 환경개선과 창의적 음식문화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식(食)문화 거점조성(우시장(상권)재생),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육성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문화재생)를 추진함.

나. 주요 사업

- **마중물 사업** (7개 사업, 375억원, '18~'23)

: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우시장 클린 인프라조성,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SH공사 투자사업), 독산 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 등

- **부처협업사업** (2개 사업 375.5억원, '17~'22)

: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금천뮤지컬 조성사업

- **자치구 사업** (6개 사업 72.5억원, '17~'19)

: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실증지역,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도시경관개선사업 등

다. 실행 수단

- 공공부문 전담조직(서울시, 금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주민협의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중앙부처 등 관련 주체의 협력적 추진 도모

-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따라 증액된 예산(기존 200억원)을 반영하여 2023년까지 마중물 사업(7개 사업)에 375억원(시비 225억원, 국비 150억원(미확정), SH공사 53억원 미포함), 부처협업사업 375.5억원, 자치구 사업 72.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

- 독산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실현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예산 확보 필요

- 마중물사업 : 375억원
- 부처협업사업 : 375.5억원
- 자치구 사업 : 72.5억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경위

- '17.02.1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17.08.1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 '17.10.24. 행정2부시장 보고(우시장 추진계획 및 현안업무)
- '17.11.15.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18.03~04. 도시재생대학 1기 운영(6주)
- '18.03.~10. 협의체 간담회 진행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 상인 협의체 간담회 진행 (월2회)
 - 산업체 및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인터뷰 실시(21개 기관)
 - 시범사업 실시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 (소식지발행, 독산매거진 발간, 지도발행 등)
- '18.05.14.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18.10.~11. 도시재생대학 2기 운영
- '18.12.12.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IV. 검토보고의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제출 경위

- 독산동 우시장 일대(금천구 독산동 292번지 일대, 232,000㎡)는 2017년 2월 도시재생 유형 중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8년 7월 변경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¹⁾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반영된 지역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한 후,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당초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2018년 12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2018년 12월 공고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²⁾에 따라 2019년 2월 국토부 뉴딜재생사업에 공공기관(SH공사) 제안형을 신청하기 위해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등 기 수립한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2019년 2월 1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였음.

□ 대상지 현황

-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지구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 92.8%, 근린 및 일반상업지역 7.2%로 구성된 주·상·공 혼재지역임. 준공업지역에는 소규모 제조업체³⁾가, 대상지 동측 근린 및 일반상업지역에는 우시장 육류 도·소매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는 금천예술공장 등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어

1) 서울시공고 제2018-157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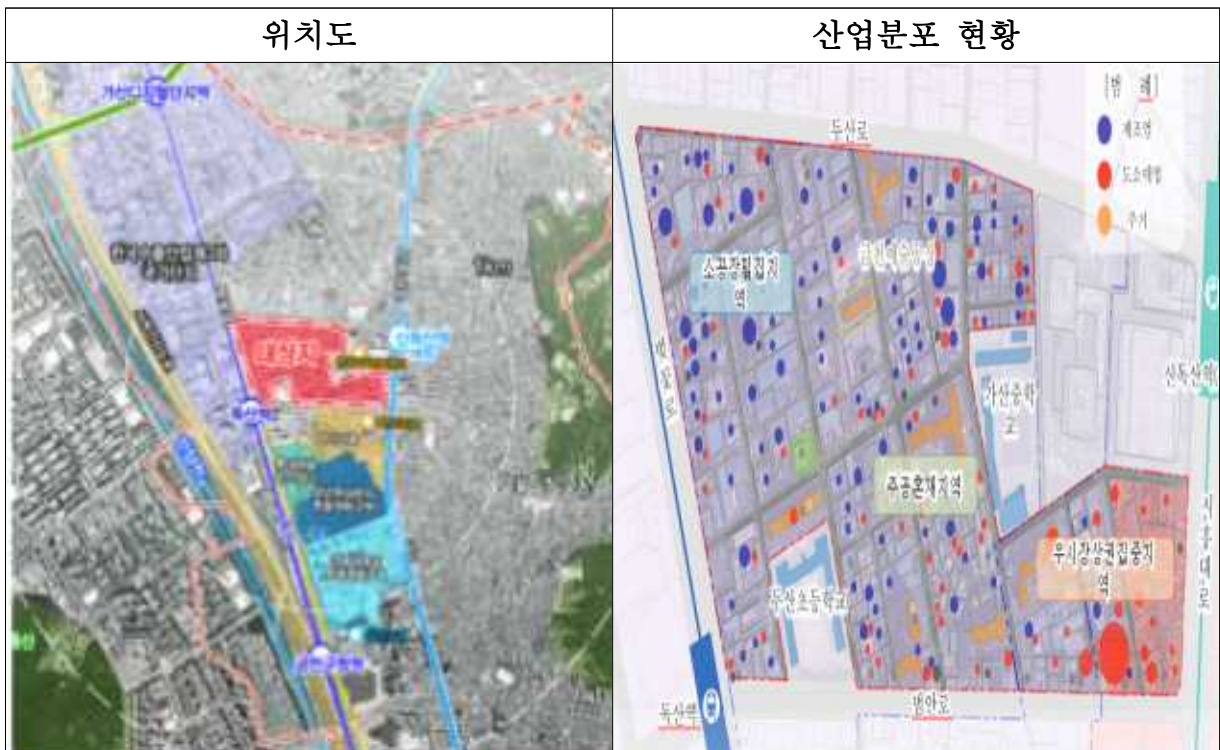
2) 국토부는 1월말~2월초에 활성화계획(안) 접수*를 받아, 3월까지 평가 후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사업을 발표할 계획임.

* 활성화계획(안)을 접수하되, 최종평가 종료 전(사·도 선정사업) 또는 최종평가 시작 전(중앙정부 선정사업) 까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를 의무화함(선도지역의 경우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3) 대상지내 준공업지역(독산1동)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27.26%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의류관련 제조업(의류봉제업)이 가장 많음.

도심제조업과 전통시장,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지역이라 하겠음.

- 최근 5년간 평균 인구 감소비율이 2.2%, 대상지 노후도⁴⁾ 72.6%, 주요 산업체 영업이익 평균 감소치 33%, 이면도로의 위 시장 악취 및 위생 등의 문제 등으로 상권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생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정주환경 및 근로환경이 열악하며 낮은 접도율과 차량혼잡으로 보행환경 또한 열악한 지역임. 그러나, 대상지 서측에 1호선 독산역이 위치하고 있고, 동측으로는 신안산선⁵⁾ 新독산역이 개통 예정이며, 북쪽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지하철도가 건설 중⁶⁾에 있어 지역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짐.



4)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5) 안산·시흥~광명~여의도(44.6km), 금천구 구간: 석수역~시흥사거리역~독산역~구로디지털단지역, 2019~2023년.
 6)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 3단지~독산동 두산길, 폭 14~36m, 연장 452m(지하차도 290m, 왕복 2차로), 2010~2021년, 684.5억원.

□ 세부계획 내용


- 사업대상지내 기존의 지역특화산업(우시장)과 토착산업(봉제공장 등)의 활성화를 꾀하고, 최근 공장이전부지를 활용한 금천예술공장의 후발효과 등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생과 우시장 상권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및 문화재생이라는 3개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7개 단위사업에 19개의 세부사업을 제안함.

목 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기간	예산 (억원)	사업주체
산업 재생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코워킹스페이스(공동작업장) 조성	'19~'23	112 (국비 46)	시 재생정책과
		공동판매장 조성			
		근로자 편의시설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19~'23	4	시 재생정책과
독산 산업문화 창업 포럼 운영					
우시 장 상권 재생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사업	우시장 악취개선사업	'19~'23	70 (국비 35)	구 치수과
		우시장 경관개선사업			구 도로과 건설행정과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청년지원주택 조성사업	'21~'23	121 (국비 58, 시비 63/ SH 53 미포함)	시 재생정책과, SH
		상권활성화 공공지원센터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스튜디오독산 조성사업	청년지역 커뮤니티 및 다목적 공유공간 조성	'18~'23	17	구 도시재생과
청년지역 지원프로그램 운영					
문화 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18~'23	26	구 도시재생과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카페 '독산사랑방' 조성			
	'독산어울림길문화가로 조성 사업	생활안전마을 조성사업	'19~'23	25	시재생정책과
		스트리트 뮤지엄 및 마을탐방로 조성사업			구 도시계획과
		독산3색 어울림 페스티벌			시 재생정책과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시설관리공단 민간

- **산업재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제조업밀집지역에 산업체 거점공간으로 ‘**산업문화 어울림센터**’(112억원)를 신규 조성하고 코워킹 스페이스(공동작업장, 디자인재단실, 창고)와 공동판매장, 근로자 쉼터, 마을카페(공유주방, 작은도서관, 빨래방) 등을 조성하여,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의 거점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4억원)을 통해 제조업과 우시장 관련 창업 및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산업재생 사업>

마중물사업	기간	예산 (억원)	사업 주체	부처협업사업 및 지자체 사업	기간	예산 (억원)	사업 주체	총 예산 (사업수)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9~’23	112 (국비46)	재생정책과	독산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17~’19	4.4	금천구 도시계획과	1204 (3개 사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9~’23	4	재생정책과					

산업 문화 어울림 센터	위치	금천구 독산동 일대	
	규모	대지면적: 925.7㎡, 연면적 : 3,407.72㎡ (지하1층, 지상5층)	
	사업비 (단위: 억원)	112 (국비 : 46/ 시비 : 66)	
	사업기간	2019~2023년	
	추진주체	서울시 재생정책과 (SH 대행)	


- **우시장(상권) 재생**을 목표로 우시장 악취 및 경관개선사업과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 스튜디오독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우시장 악취개선사업**’(70억원)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와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위생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우시장의 특색을 표현한 간판디자인 사업,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우시장 일대의 낡고 노후한 미관으로 인해

낙후된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시장 상가별 위치 및 점포별 취급부위, 할인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121억원)를 조성하여 순환형 상생협력상가⁷⁾,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을 위한 ‘상권활성화 공공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참여의 거점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의 촉매제로 활용함.
- 이외에 독산동에 기 조성되어 있는 ‘스튜디오독산’(17억원)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어울림센터내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과 청년, 상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시장 이미지 개선을 실현하고자 함.

<우시장 상권재생 사업>

마중물사업	기간	예산(억원)	사업주체	부처협업사업 및 지자체 사업	기간	예산(억원)	사업주체	총 예산(사업수)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사업	‘19~’23	70 (국비 35)	금천구 치수과, 도로과, 건설행정과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17~’22	325.5	중소벤처기업부	5382 (6개 사업)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1~’23	121 (국비 58)	재생정책과	사물인터넷(IoT) 도시 실증지역 조성사업	‘18	2.5	금천구 정보화기획과	
스튜디오 독산 조성사업	‘18~’23	17 (국비 5)	금천구 도시재생과	우시장 특화상권 조성사업	‘17~’19	2.2	금천구 지역경제과	

상권 활성화 어울림 센터	위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일대	
	규모	건폐율 60%, 용적률 249.8% (지하2층-지상7층)	
	사업비 (단위: 억원)	174 (국비:58 / 시비:63)	
	사업기간	2019~2023년	
	추진주체	서울시 재생정책과 (SH 대행)	

7) 상생협력상가 : 도시재생사업지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창업자 또는 임대료 상승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 임차상인) 상업용 건물

- 문화·공동체 재생을 위해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과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을 추진함.
-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사업’(25억원)은 중심가로(독산역과 신독산역)의 보행환경 조성, 스트리트 뮤지엄 조성 및 마을탐방로 개설사업, 독산3색 어울림 페스티벌, 공유주차장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업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26억원)으로는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주민·상인·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 유도 및 자력재생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문화/공동체재생 사업>

마중물사업	기간	예산 (억원)	사업 주체	부처협업사업 및 지자체 사업	기간	예산 (억원)	사업 주체	총 예산 (사업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18~’23	26	금천구 도시재생과	(가칭)금천어르신 복지센터	‘16~’18	55.4	금천구 복지본부	1644 (6개 사업)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 사업	‘19~’23	25 (국비 6)	재생정책과 금천구 도시계획과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18~’19	7.0	금천구 도시계획과	
				금천 뮤지컬스쿨 조성사업	‘17~’19	50	문화체육 관광부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17~’18	1.0	금천구 문화본부	

둘째, 실행수단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에서 이 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17년 개소)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행정,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및 콘텐츠를 발굴,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지속성 등 사업 추진 동력을 형성할 계획임.

한편, 금천구청은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8년에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하였고, 활성화계획의 핵심 콘텐츠 도출시기에 맞추어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로 발전시켜 구성·운영 중임. 우시장 일대 (임시)상인 및 주민협의체(‘17.3)와 (임시)산업협의체(‘18.10)를 통합한 주민협의체가 발족(‘19.2.1)되어 분과별로 관련 상인 등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사업별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마중물 사업 등 주민참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설치 가능

- 당초 이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비로 시비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될 경우를 예상하여 도시재생 보조사업으로 총 375억원을 책정하였음. (시비 225억원, 국비 150억원). 총 사업비 중 어울림센터(산업문화/상권활성화) 조성사업에 총 233억원, 도시환경개선사업에 75억원이 계획되어, 2023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며, 부처협업 및

지자체 사업과 SH공사 투자사업을 합하면 이 일대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876억원임.



□ 주요 검토사항

“산업재생 관련”

-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토착산업인 제조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어 경기도 인근 등으로 제조업체가 이전함에 따라 도심 제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밀집지역의 재생과 관련한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과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등의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다만, 이 지역 특화산업의 생존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향후 전망 등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산업정책을 고찰하고, 서울시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제 정책의 파악 및 연계를 통

해 기존의 지역특화산업과 신산업의 결합, 제조업 연관 서비스 산업의 성장, 영세산업의 공생공간 확보, 네트워킹 지원 등으로 확대되는 산업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수립 중('17~'19)에 있는 독산역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과의 상호 피드백을 통한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음.

아울러, 1960년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봉제 위주의 산업단지에서 최근 첨단도시형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는 G밸리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사료됨.

- 어울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금천예술공장'과 '스튜디오독산'의 경우 주민과 상인들이 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및 프로그램 도입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음.

“산업환경과 주거환경의 조화”

- 사업대상지의 쇠퇴요인에는 주·상·공 혼재 심화에 따른 생활민원 및 지역 갈등 심화, 독산동 우시장의 위생환경 악화, 인프라시설 부족에 따른 정주 및 근로 환경 열악, 개발압력 가중에 따른 상가내몰림 등이 있음. 생활공간과 상업, 산업공간의 공존 방안, 그리고 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 주·상·공의 상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시장의 악취제거와 경관개선사업, 생활안전마을 조성, 청년지원주택 조성사업 등을 통한 우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주거환경 편리성 제고는 바람직

하다 판단되나, 지역내 교통혼잡, 보행환경 문제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 방법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또한, 향후 시설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겠음.

“상권 활성화”

- 축산 유통구조 변화, 인근 홈플러스, 빅마켓 등 대형 점포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 확대 등 판매시스템의 개선과 우시장의 식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망함. 단순히 고기를 사고 파는 장소성에서 탈피하여 먹고 즐기는 장소성으로서 우시장 이미지 개선과 캐릭터를 개발·마케팅하여 우시장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대안사업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협업체계 구축”

-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 상공인들의 자치 조직이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성한 후,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서울시는 나아가 마중물 사업과 부처협업사업, 자치구 사업에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 사업(금천구 도시계획과, '19~'23)과 그린푸줏간 사업(부산물 및 유지처리 공동작업장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17~'22) 등 유사 사업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와의 소통채널을 개설하여 사업이 시기적으로 병행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종합

- 사업대상지는 제조업밀집지역과 지역특화산업 등이 공간적으로는 연접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 분리 또는 혼재되어 특화된 상태에서 다소 이질적인 산업과 문화가 혼합된 지역으로서, 각각 독특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들 간의 차별성을 살리면서 상호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하는 것은 사업대상지에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런 의미에서, 지역자원의 특색을 적극 활용하여 3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과제와 전략을 수립한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다만, 주민의 참여확대와 역할증대가 활성화계획의 실행력과 재생사업의 성공 여부, 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적인 사업관리 등에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주민의 역량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있겠음.

- 실행계획으로서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현재 진행 단계로서,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합리적인 문제 제기 및 요청사항을 계획안에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선정 심사기준에 맞게 계획내용을 수립하는 등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도시재생 뉴딜공모와 서울시 공모사업의 심사기준>

구 분	도시재생뉴딜공모 (중심시가지, 공공기관 제안방식(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서울시 공모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심사 기준	① 거버넌스 구축 ② 활성화계획의 적정성 ③ 단위사업의 목표달성 및 추진 가능성 ④ 전체사업의 효과	① 주민역량 및 추진의지 ② 사업컨텐츠 등 내용의 적정성 ③ 지역단체 역량 등 사업실행가능성 ④ 도시재생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동의 (의견제시, 출석위원 전원 찬성)

의견

- 우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활용하여 파생상품과 먹거리 골목 등 전방연계 효과가 높아지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
- 동종 산업 및 이종 산업간 협업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앵커시설의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것
- 앵커시설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는 재생사업의 관점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앵커시설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추후 설치될 앵커시설의 본래의 기능 확립과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

VI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436
----------	-----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나.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 우시장현대화 및 상권활성화, 주공혼재지역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전략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3. 추진경위

- '17.02.1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17.08.1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 '17.10.24. 행정2부시장 보고(우시장 추진계획 및 현안업무)
- '17.11.15.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18.03~2018.04. 도시재생대학 1기 운영(6주)
- 2018. 03.~10. 협의체 간담회 진행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 상인 협의체 간담회 진행 (월2회)
 - 산업체 및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인터뷰 실시(21개 기관)
 - 시범사업 실시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 (소식지발행, 독산매거진 발간, 지도발행 등)
- '18.05.14.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18.10.~11. 도시재생대학 2기 운영
- '18.12.12.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의견청취사항

※ 작성자 : 재생정책과 재생사업팀 장수련 (☎ 2133-8637)